

청렴지킴이

(서울북부지사)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부정한 행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해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면 그 피해도 최소화 될 수 있음
- 보복, 주위 시선 때문에 타인의 부조리를 확인하고도 묵인하는 상황이 발생

□ 내용

- 내부고발제도는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행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해 내부에서 스스로 체크하고 예방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문제가 비화되기 전에 임직원이 먼저 개선하는 제도
- 개선방향
 - 하이넷 포털에 “(가칭)청렴지킴이” 게시판을 신설하여 부정·부패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부조리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
 - 무분별한 신고 등으로 선량한 임직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재경영부, 감사실, 노동조합이 함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직원면담을 실시하여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 추진실적(제도변경 내용 등)

<규정 제·개정 등 제도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	‘청렴지킴이’ 게시판 미설치

□ 파급효과(성과)

- 부정·부패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들의 청렴 의식 고취 가능

□ 기타

- <뉴스> 내부고발제도, 사내 윤리 강화에 효과적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내부고발제도를 제대로 활용해 윤리경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포상 제도를 확대하고 악성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를 통한 기업 평판 관리’를 주제로 2014년 제2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김영삼 전무는 ACFE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제보는 내부감사 등 다른 내부통제 수단에 비해 비윤리행위 적발에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며 “제보 시 적시해야 할 내용을 상세하게 정의하거나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등 악의적 혹은 음해성 제보를 걸러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활용하면 장점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 략)

전경련 이용우 사회본부장은 이날 주제와 관련 “내부고발제도가 취지대로 실효성을 높이려면, 이제는 내부고발 의도와 주변관계 파악을 통해 악의적 제보는 선별하고 좋은 제보는 포상하는 등 정교한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416000458&fromurl=na>

○ 사례

【내부통제 수단에 따른 효과성 비교】

<비윤리행위 최초 적발경로>

내부통제수단	제보	내부감사	우연
비율	43.3%	14.4%	7.0%

* 출처 : 2012 Global Fraud Survey, Report on Occupational Fraud and Abuse by ACFE
(2012년 세계 96개국의 기업과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1,388건의 부정부패 사례조사)